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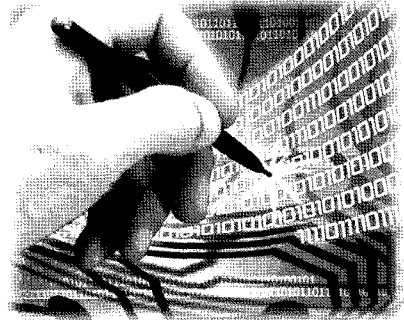
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,218억 지원

2010년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계속과제 875억, 신규과제 344억원 지원

개요

- 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는 올 한해 지역전략산업*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1,2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※ 지역전략산업 : 광역시·도 단위로 지역별 산업분포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3~4개의 산업



- 동 사업은 13개 광역시·도별 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,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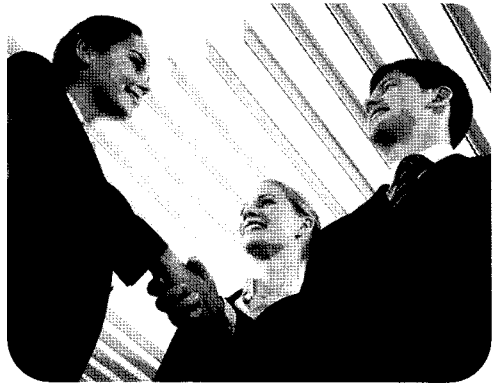
※ (광역시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 / (도)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
- 올해는 전체 지원금의 약70%(874억원)는 '08년도부터 지원 중인 계속과제에, 나머지 30%(344억 원)는 신규과제에 지원하여 기업의 신규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다.

세부지원 계획

- 올해 344억원이 지원되는 신규과제는 과제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수혜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(年)2회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,

- 상반기 신규과제(165억원)는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완료하고, 하반기 신규과제(179억원)는 6월 중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.
- 또한, 계속 과제는 전문가 자문, 현장실태조사 등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되, 개발이 지연되거나 실적이 미진한 과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.



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

- 특히,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복잡한 사업체계를 '자유공모형' 및 '과제지정형'으로 단순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아울러, 선정된 과제라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20%이내 과제를 조기 탈락시키는 '상대평가' 제도를 도입하여, 온정주의적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과제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.
- 한편,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은 '99년부터 '09년까지 총1조843억원을 투입하여,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 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,
- 기술개발 기업의 '매출액 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'가 우수하고,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다.

〈정부지원금 1억원당성과('04-' 08)〉

구분	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
매출증가액	5.8억원
경제적성과 (매출액증가 + 비용절감)	7.1억원
사업화 성공률	47.2%

※ 사업화 : 기술개발로 매출이 발생했거나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한 경우

※ 출처 : 2009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 보고서('09.10. Keit)